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 1,000원대 가나

원화가치 급락...1년 11개월만에 970원 상승 수출업체 호재 불구 '물가폭탄' 불안 가능성

미국 달러화의 기록적 약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원화 약세는 수출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주식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조만간 '1달러=1천원'로 배제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미 위태로운 수준인 물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역주행 원화가치. 수출 좋지만 '물가 폭탄' 우려 =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 때 980.60원까지 급등한 뒤 전장보다 달러당 4.70원 상승한 97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8거래일간 33.50원 급등하면서 2006년 4월 3일 이후 1년11개월만에 970원대로 상

승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유로화에 대한 미국 달러화 환율이 유로당 1.5358달러로 사상 최저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극명한 대조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환율이 상승세를 굳힌 만큼 980원선 안착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일부에서는 네자리수 복귀까지 점치고 있다.

원화가치의 역주행은 물론 수출측에는 분명한 호재다. 지식경제부의 한 당국자는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였지만 이달에는 전월에 비해 개선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원화 약세가 가져온 수출전선의 변화를 반기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물가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 물가 전망치를 3.3%로 설정했지만 전년 동월비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3.9%로 3년4개월만에 최고치를 치솟은 데 이어 2월에는 라면값 인상 등 수입원자재 가격의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3.6%로 벌써 두 달째 정부 공식 전망치를 넘어선 상태다.

소비자물가의 예고성격이 강한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8월 1.7% 상승을 시작으로 ▲9월 2.1% ▲10월 3.4% ▲11월 4.4% ▲12월 5.1% ▲올해 1월 5.9%

▲2월 6.8%로 갈수록 상승폭이 가파른 곡선을 그리고 있다. 원자재가 폭등에 원화 가치 급락이 겹치면 원자재를 해외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대외수지를 단기적으로 개선하려다 수습하기 힘든 '물가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경보에 따른 것이다.

◇원화가치는 주식시장에 긍정적 = 원화가치는 수출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의 실적개선을 이끌어질 공산이 크다.

게다가 코스피200 기업 기준으로 작년 3·4분기 누적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6.3%에 달하는 만큼 전체 주식시장에서도 호재로 인식되고 있다.

KB투자증권은 원화 약세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IT와 자동차를 꼽았다.

반면 철강과 화학, 음식료 등은 원화 약세 피해주로 꼽혔다. /연합뉴스

모건스탠리 "올 하반기 주가 2,300 간다"

美 서브프라임 등 안정 찾아 국내 시장 '비중 확대' 제시 자동차·가전·철강업종 유망

모건스탠리는 11일 "미국 경제가 안정을 찾아 가는 하반기에는 한국 증시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올해 말 코스피지수가 2,200~2,300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인 매도세에 대해서는 당장 순매수 전환은 어렵겠지만 국내 증시가 기술적 과매도 상태에 도달한 만큼 매도 강도는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리서치헤드인 박찬익 전무는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성장률과 기업이익 전망이 여전히 긍정적이고 증시 밸류에이션도 아시아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며 "서브프라임 위기가 상반기 뚜렷한 반등은 없었으나 2·4분기 초를 저점으로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경제 전망과 관련해 모건스탠리는 올해 가계소비가 작년보다 호전되고 수출 증가율이 10%대를 유지하면서 GDP 성장률이 작년과 비슷한 4.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자금이 28조원에 달했고 현재 외국인 시총비중이 30% 수준으로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매도세도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전무는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가 현재 외국인 매도를 주도하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그러나 주요 종목의 대주비율이 10% 이상인 증시 회복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예상되고 중국 적격기관투자자(QDII) 승인 확대로 중국을 통해 외국자금이 한국 증시로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의 변수가 악화되면 코스피지수가 1,600선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으나 단기에 그칠 것"이라며 이 경우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모건스탠리는 한국을 아시아시장에서 대만 다음으로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고 '비중확대' 의견을 제시했으며 자동차, 가전, 철강업종과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 있는 은행주들을 유망업종(종목)으로 제시했다.

올해 경제 전망과 관련해 모건스탠리는 올해 가계소비가 작년보다 호전되고 수출 증가율이 10%대를 유지하면서 GDP 성장률이 작년과 비슷한 4.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유가 108달러 또 최고치

서부 텍사스 중질유 2.6% 올라

10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장중에 사상 처음으로 배럴 당 108달러를 넘어선 등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는 지난 주말 종가에 비해 2.75달러, 2.6% 급등한 배럴당 107.9달러에 거래를 마감, 또다시 종가 기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WTI는 장중에 배럴당 108.21달러까지 급등, 지난 주말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106.54달러를 가볍게 뛰어넘으면서 배럴 당 110달러 돌파를 가시권 안으로 끌어들었다.

영국 런던 ICE 선물시장의 4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장중에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104.42달러까지 오르는 강세를 보인 끝에 지난 주말에 비해 1.78달러, 1.7% 상승한 배럴당 104.16달러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영국 런던 ICE 선물시장의 4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장중에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104.42달러까지 오르는 강세를 보인 끝에 지난 주말에 비해 1.78달러, 1.7% 상승한 배럴당 104.16달러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1월 소매 판매 10% 증가

차량용 연료·가정용 직물 등 20조원

지난 1월 소매 판매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1월 소비자판매액 동향'에 따르면 1월 소매 판매액은 총 20조2천806억원으로 작년 1월의 18조4천419억원에 비해 10.0% 증가했다. 바로 앞달인 작년 12월(21조835억원)과 비교하면 8천299억 원 정도 감소한 것이나, 계절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상품군별로는 가정용 직물·의복 등 준내구가 4조5천116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2.2% 늘었고 자동차·가전제품 등 내구재와 비내구재가 각각 4조3천377억 원, 11조4천312억원으로 각각 4.4%, 11.4% 증가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설 수요에 힘입어 곡물·육류 등 비가공식품이 1년전보다 35.1% 크게 늘었고, 화장품·비누(32.8%), 서적·문구용품(25.3%) 등도 급증

했다. 반면 가공식품(-5.2%), 컴퓨터·통신기기(-2.3%) 등은 감소했다.

전체 소매판매액 가운데 상품별 비중을 살펴보면, 차량용연료(17.1%), 가정용 직물·의복(15.0%), 승용차(9.8%), 가공식품(11.9%) 등의 순으로 컸다.

업태별로는 사이버쇼핑몰 등 무점포 판매액이 2조329억원으로 19.4% 늘었고, 대형마트 역시 2조6천194억원으로 19.7%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백화점의 경우 1조6천360억원으로 9.7% 증가했다.

통계청 설명에 따르면 이번엔 처음 발표된 소매판매액 통계는 단순히 소매단계의 판매액을 모두 합산한 것으로, 계절적 요인이나 영업일수 등의 차이를 반영해 지수화한 것이 아닌만큼 전월비 등의 수치로는 소비 동향을 살펴보기에 한계가 있다. /연합뉴스



설레는 화이트데이

11일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에 마음을 전하는 글귀를 적어 판매하는 행사를 개최, 예약자들이 원하는 문구를 적어 넣어주고 있다. /연합뉴스

카드 외상규모 5년래 최고

작년 4분기 2조600억증가... 카드대란때 수준과 비슷

신용카드를 이용한 외상구매와 현금 서비스 규모가 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부에서는 그동안의 오랜 부채조정 끝에 소비자들이 다시 신용카드를 이용해 소비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신용카드 구매액 규모가 2002년 신용카드 대란 당시의 수준에 비슷하게 근접한 것이어서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신용카드를 통한 판매신용은 2조6천249억원이 증가해 2002년 4분기의 3조4천807억원 이후 5년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신용카드 판매신용은 카드를 이용한 구매액과 현금서비스를 합친 금액이다.

지난해 분기별 신용카드의 판매신용 증가액은 1분기에 -1천911억원, 2분기 4천269억원, 3분기 1천118억원에 이어 4분기에 갑자기 2조6천249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카드대란 당시인 2002년 1분기에 1조978억원, 2분기 2조6천127억원, 3분기 1천593억원, 4분기 3조4천807억원 등이었던 것과 비교해 작년 4분기 실적은 다소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이자부담이 과도한 현금서비스보다는 상품·서비스 구매가 크게 늘어난 것이어서 그동안의 오랜 조정 끝에 건전한 소비가 되살아나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기준으로 2002년에 신용카드 판매신용이 8조2천506억원이 급증했던 데 비해 2007년의 증가액은 2조9천500억원이어서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연합뉴스

4천269억원, 3분기 1천118억원에 이어 4분기에 갑자기 2조6천249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카드대란 당시인 2002년 1분기에 1조978억원, 2분기 2조6천127억원, 3분기 1천593억원, 4분기 3조4천807억원 등이었던 것과 비교해 작년 4분기 실적은 다소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이자부담이 과도한 현금서비스보다는 상품·서비스 구매가 크게 늘어난 것이어서 그동안의 오랜 조정 끝에 건전한 소비가 되살아나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기준으로 2002년에 신용카드 판매신용이 8조2천506억원이 급증했던 데 비해 2007년의 증가액은 2조9천500억원이어서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연합뉴스



시가 130억 다이아몬드

10일 미국 뉴욕에서 72.2캐럿 짜리 최상급 무결점 D-컬러 다이아몬드가 다음 달 10일 홍콩 소더비 경매에 앞서 일반에게 공개됐다.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약 13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KDI "국민연금 2060년 고갈"

지난해 단행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이 늦춰지긴 했지만, 여전히 추가적 제도조정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2060년께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추가적인 제도조정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2060년께 고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재정적자 발생시점은 2035년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연금법 개정 이전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이 2045년, 재정적자 발생시점은 2025년으로 예상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에 따른 급여감축으로 장기적인 국민연금재정은 크게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제도개선에 있어서는 가급적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과 함께 급여인하조정기간의 단축,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자동급여조정장치의 도입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현 급여체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기금적립비율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약 15% 수준까지 인상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연합뉴스

환위험 회피 외화예금 인기

우리은행, 지난달 9억달러 배로 늘어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환위험 해지(회피) 기능이 있는 은행권 외화예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외화를 미리 사서 외화예금에 예치해 두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우리 원(ONE) 외화정기예금의 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8억9천500만달러로 전월말의 4억2천900만달러에 비해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 예금은 미 달러화와 유로화, 일본 엔화, 호주달러화, 영국 파운드화 등 최대 10개국 통화로 된 다양한 외화예금을 하나의 계좌로 관리할 수 있으며 한 번의 서류 제출로 개설할 수 있다.

기업은행의 카멜레온 외화정기예금도 지난달 말 현재 13억9천만달러로 전월말보다 1억3천만달러(10.3%) 증가했다.

신한은행의 외화체인저업 예금은 지난달 말 현재 9천777억원으로 전월말보다 757억원(8.4%) 늘었다. /연합뉴스

미분양 아파트 129가구 매입

국토해양부, 이달 중 2차 매입

국토해양부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 협상을 진행한 결과 충남에서 129가구를 처음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여기에서 민간에서 사들인 169가구를 포함해 전체 미분양주택의 0.27%에 불과해 미분양 해소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작년 9월 공공기관이 5천여 가구를 직접 사들이기로 하는 내용의 미분양 대책을 발표한 뒤 주택공사가 매입 작업을 벌여 왔다.

작년 11월 매입 신청이 들어온 가구는 4천542가구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임대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1천629가구에 대해 가격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가격을 두고 난항이 계속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매입하기로 한 미분양주택의 매입가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매입한 아파트는 시세보다 싼 가격에 도시근로자 등 서민층에 10년간 임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매입을 시작으로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단지에 대해서도 추가 매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이달 중에 2차 매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전용면적 60㎡이하 1천가구, 60㎡초과 3천가구 등 4천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기아자동차 광주제일대리점	자동차 카 매니저/자동차 판매(신입/경력/주부가능)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4	062-574-8011
에스디케이	국립광주박물관 전시실안내원 (계약직)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3/14	062-571-7113
광주인스튜디오	일반 사무관리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4	062-374-6400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 상담직(광주고객지원센터)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3/16	062-370-6800
화인코리아	2008년 각 분야별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7	061-330-4523
신인중공업	각 분야별 신입 및 경력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7	062-717-5521
동화테크	장부2센터 단기프로젝트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8	062-371-9100
씨에이치솔루션	(주)5일SK텔레콤(송정리) 멀티 CRM센터 고객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400~2600	03/20	02-456-9799
본스틸	생산직 남자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3/20	062-946-6600
창익택전문점	전화상담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0	010-3211-6749
에버트리스정보기술	전산실 오퍼레이터 신입사원 (광주 근무)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3/22	02-445-1180
대진미디어텍	센스있는 웹디자인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2	062-382-1232
정광디자인	인테리어 현장 기사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3/22	062-376-9040
엔엠에프코리아	웹디자인, 집합소프웨어	초대졸/경력2년	1600~1800	03/22	062-513-8957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20~30대 취업 희망 외국계 기업

유한킴벌리·구글 順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은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20~30대 구직자 1천803명을 대상으로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을 설문한 결과 유한킴벌리(11.2%)가 가장 많이 뽑혔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구글코리아(9.3%), 한국P&G(5.8%), 한국3M(5.1%), 소니코리아(3.9%), 로레알코리아(3.7%), 한국IBM(3.3%) 등의 순이었다.

입사하고 싶은 이유로 유한킴벌리, 구글코리아, 한국P&G, 한국3M 등의 경우 응답률이 조금씩 다르지만 '우수한 복리후생 및 근무환경'이 가장 많이 꼽혔다. 소니코리아, 로레알코리아, 한국IBM의 경우는 '기업 이미지, 인지도가 좋아서'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